



FOREWORD

0 | 책의 머리말

한 노인이 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었네. 그 꿈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몰라서 20대를 방황하며 보냈지. 그리고 30대가 되었네. 그 꿈을 이를 방법이 보였지만, 내게는 처자식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40대가 되었네. 40대가 되어 생각해 보니 그 꿈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처자식을 위한 일이었었네. 하지만 40대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심지어 부끄러운 나이인 것 같았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꿈을 꿨었노라고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지. 그렇게 술을 마시며 50대가 되어 생각해 보니 40대도 늦었던 것이 아니었어. 50대에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시간도 없는 것 같았네. 그래서 또 불평을 하며 60대를 기다렸네. 어차피 꿈을 이루지도 못한 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빨리 늙어 버리고 싶었네. 60대가 되고 나니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아 있었네. 나는 이제 70세를 바라보고 있네. 지금도 어제부터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미련이 남네.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인처럼 삽니다.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늙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해 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 초조함이 본인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자극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하루는 너무 여유롭고 허망하게 보내면서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고 초조해 합니다.

20대의 이유진은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서른 두 살까지만 강의할 거야. 서른 세 살부터는 돈을 골방에 쌓아 놓고 아껴 쓰면서 콩별례처럼 앉아 글을 쓸 거야. 문제집 따위 말고 정말 글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거야. 그때 까지 설마 내가 마이크 잡고 강단에 서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줘.”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제게 일러주지 않아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돈을 덜 모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목표했던 만큼의 돈(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면 콩벌레처럼 살아야 하는 금액)을 모으고도 강단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어릴 적부터의 꿈만큼이나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서 놓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1타 같은 것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쉬움이 단 1%도 없는 강의를 할 때까지는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단 1%도 없는 강의, 하지만 그것이 오만에 의한 판단이 아닌, 그런 강의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문제집도 만들고 칼럼도 쓰면서 바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어제보다 늙었지만 내일보다 훨씬 젊습니다. 자신에게 뜻밖의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을 두려워할 시간에 오늘을 사세요.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데 오늘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하던 미래가 현실이 돼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 짧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바쁘게 쓰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시간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관망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진 것은 현재뿐이다.”

–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브로큰 플라워〉 中

편저자
이유진



★ 이유진이 알려주는 학습 Tip

01

항목화

우리 머리에도 '풀더
생성'과 '알집 기능'
이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을 기억한다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좁고 깊어서' 힘든 시험이라기보다 '얕지만 미친 듯이 넓어' 괴로운 시험입니다. 누가 덜 잊어버리느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학습자는 공부한 내용이 우연히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기억할 때부터 지식을 조직화해 적절한 장소에 넣은 뒤 나중에 저장한 것을 목적으로 맞춰 빠르고 정확히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보들 간의 의미 관계를 만들어 '덩어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관 개념도 자연스레 떠오르고 외워야 할 덩어리 개수 자체가 줄어드니 뇌의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비둘기', '세무사', '라디오', '호랑이', '변호사' 등의 단어가 적힌 카드 수십장을 빠르게 넘기며 보여주고 이 단어를 최대한 다시 써내도록 했을 때, 전자 제품·직업·동물이라는 상위 항목을 설정해 기억하면 규칙 없이 마구 외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국어 학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시 1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이인데도 사이시옷이 쓰이는 예외가 6가지 있죠. 이것은 예외라서 그냥 암기해야 합니다. 이런 마구잡이 임기가 수험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6개의 예외 단어를 '툇간, 숫자, 샛방, 곳간, 횟수, 찻간'이라고 그냥 외우려 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이 예외는 6개!
전체를 떠올릴 때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제 저는 '간'으로 끝나는 단어를 묶습니다. '툇간, 곳간, 찻간'
다음으로는 수와 관련된 단어를 묶습니다. '숫자, 횟수'
그리고 이미지로 '샛방'을 하나 만든 뒤에 이 단어 두 덩어리를 넣으세요.
자, 이제 다시 떠올려 봅시다.
'간'으로 끝나는 〈툇/곳/찻간〉, 숫자 관련 〈숫자/횟수〉, 마지막으로 〈샛방〉
이제 여러분은 예외 6가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접사 '수-'가 일반형인데, '수-'을 쓰는 예외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 보세요.

'양'과 '염소'는 모두 '메에~'하고 읍니다. 그래서 '수양, 수염소'는 한 묶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찍찍'하고 우는 '쥐'가 쥐 새끼처럼 끼어 있네요. '수양, 수염소, 수쥐' 이렇게 3개의 단어가 '수-'이라는 접사를 씁니다.

공무원 합격을 향한 날개를 달아주는
이유진 나래국어

예시 3

'수-'를 쓰는 경우에 '수-는-'을 쓰는 예외도 있습니다. 9개의 단어죠. 이 단어들을 그냥 '수탉, 수기와, 수컷, 수퇘지, 수평아리, 수강아지, 수풀짜귀, 수캐, 수탕나귀' 이렇게 마구잡이로 외우면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에는, 어미와 새끼를 짹 지어서 '수탉, 수평아리', '수캐, 수강아지' 두 묶음을 만들고, '돼지 새끼'나 '당나귀 새끼'는 마치 육 같죠? '돼지'랑 '당나귀'는 그냥 동물 2개로 초기합니다. 그 다음 건축에 사용되는 '기와'와 '돌짜귀'를 묶어 주세요. '수기와, 수풀짜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수컷'입니다.

그럼 동물 6개 <수탉-수평아리, 수캐-수강아지, 수퇘지, 수탕나귀>, 건축 용어 2개 <수기와, 수풀짜귀>, <수컷> 이렇게 9개가 외워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목화를 할 때에는 의미의 유사성을 잡아서 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류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죠. 줄글을 마인드맵으로 만들거나 벤다이어그램, 수형도 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02

부호화

정보에 '네임태그'를
달자

예시

자음 체계표를 외울 때, 입술소리부터 목청소리까지 뒤로 가면서 자음에 'ㅏ'를 붙여 '바다시자가 하! / 마누라양' 이렇게 네임태그를 달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미가 없는 말이더라도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음 체계표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피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ㅈ ㅉ ㅊ		
	미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ㅅ ㅆ	ㅊ		ㅎ
	울림 소리	비음 유음	ㅁ ㄹ	ㄴ	ㅇ	

03

능동적 암기

보고 말하면서
들으며 '3회독'

같은 5분을 써서 두 사람이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책을 보고 줄을 그으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학습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강의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 학원을 갈 때 버스에서 이어폰으로 자신의 강의를 들을 생각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요. 미친 사람 같지 않느냐고요? 뭐 어떤가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보고, 말하고, 듣고 이 사람은 별써 3회독의 효과를 봤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때에는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날 밤 집에 가서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강의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까요? 당연히 능동적으로 3회독을 한 학습자이겠죠?

04

3시간·3일·13일

반복법

망각의 주기를
이용한 '장기 기억'
학습법

우리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학습하자마자 망각도 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복습을 해 주면 다시 기억이 살아나고, 이내 영구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파악한 가장 이상적인 복습의 주기는 3시간, 3일, 13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로 배우는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과목을 보름 동안 세 번이나 복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 번의 복습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 3·3·3 비법

1. 수업 3시간 뒤 : 10~15분 정도를 투자해 교재를 읽으며 수업 시간을 회상한다.

(1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4시간 수업이라면 40~60분 정도)

2. 수업 3일 뒤 : 30분 정도를 투자해 내용을 다시 읽고 내용을 나름대로 재구성한다.

백지에 키워드를 적어 보거나 마인드맵 등의 도식을 그려 보거나 관련된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 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1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4시간 수업이라면 2시간 정도)

3. 수업 13일 뒤 : 10~15분 정도를 투자해 교재를 읽고 자신이 나름대로 재구성하던 시간을 회상한다.

(1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4시간 수업이라면 40~60분 정도)

이렇게 하면 3회의 복습을 다 합쳐도 1시간 수업에 대해서는 1시간, 4시간 수업에 대해서는 4시간, 수업을 들은 시간만큼만 복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한꺼번에 이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에 나누어 활용해야 합니다. 혹시 헬스장에서 러닝 머신을 사용해 보셨나요? 제대로 운동을 배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기 시작해서 경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몸에 열이 오르면 뛰기 시작해서 최대한 뻐틴 뒤 다시 속도를 늦춰 경보를 하며 마무리하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무리가 갈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분 동안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보다 오히려 걷기 5분, 경보(빠른 걷기) 10분, 달리기 10분, 경보 5분을 할 때 운동 효과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아무리 범위가 넓은 시험이라도 한 강사를 믿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 방법으로 3·3·3 복습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본서 내용들이 어 느새 뇌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업을 들은 시간만큼만 3회에 나눠 복습하자! 이것이 망각의 속도를 이기는 기억 보존의 비법입니다.

05

스키마 활용

'지식의 부익부 현상'을
느껴라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용을 더 잘 습득·기억할 수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다시 더 쉽게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합반 수업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카테고리 이해에 집중하고 나중에 세세한 부분을 보라고 합니다. 얕고 넓게 시작해서 회독 수를 늘리면서 점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BS 다큐프라임에서 피아노 전공자들과 야구부 선수들에게 같은 야구 경기 영상을 보여 주고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아노 전공자들은 야구 외적인 요소만 겨우 기억해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을 던졌고, 그 사람은 빨간 줄무늬 옷을 입었다, 뒤의 광고판에는 무슨 제품이 있었다와 같은 내용이었고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반면, 야구부는 경기 내용 위주로 자세하게 기억했습니다. 유격수, 벤트, 몇 루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흐름을 정확히 기억해 낸 것입니다. 두 집단에 클래식 피아노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공무원 수험에 적용해 보면, 개념어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후천적 천재, 즉 똑똑한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인하지 못한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포기는 힘들어진다.

한번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포기는 습관이 된다.

- 빈스 롬바르디



0 | 책의 차례

PART 01	언어와 국어	PART 03	형태		
제1장 언어					
01 언어의 본질(本質)	… 12	제1장 형태론			
02 언어의 특성(特性)	… 12	01 형태소와 단어	… 92		
03 언어의 기능	… 15	02 단어의 분류	… 95		
04 언어와 인간	… 17	03 품사	… 100		
제2장 국어					
01 국어의 개념	… 18	제2장 기출로 보는 형태(형태론)	… 117		
02 국어의 분류	… 18	제3장 한글 맞춤법			
03 국어의 특질(特質)	… 18	01 총칙	… 136		
04 국어의 어휘	… 20	02 자모	… 136		
제3장 한글					
01 한글의 종류	… 23	03 소리에 관한 것	… 137		
02 한글의 여러 명칭	… 23	04 형태에 관한 것	… 145		
03 현재 한글의 사전 배열 순서	… 23	05 띄어쓰기	… 168		
제4장 기출로 보는 언어와 국어	… 24	06 그 밖의 것	… 182		
제5장 표준어 규정					
PART 02	소리	07 부록(개정 문장 부호)	… 189		
제1장 음운론					
01 음성과 발음 체계	… 32	제4장 기출로 보는 형태(한글 맞춤법)	… 198		
02 음운(音韻)	… 33	제5장 표준어 규정			
03 음운의 체계	… 34	01 총칙	… 216		
04 음운의 변동	… 38	02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216		
제2장 기출로 보는 소리(음운론)	… 46	03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231		
제6장 기출로 보는 형태(표준어 규정)					
제3장 표준 발음법					
01 총칙	… 53	… 255			
02 자음과 모음	… 54	제7장 문장			
03 소리의 길이	… 57	제1장 통사론			
04 받침의 발음	… 64	01 문장(文章)의 이해	… 262		
05 소리의 동화	… 70	02 문장의 짜임새	… 267		
06 된소리되기	… 74	03 문장의 문법적 요소	… 271		
07 소리의 첨가	… 78	제2장 기출로 보는 문장(통사론)	… 281		
제4장 기출로 보는 소리(표준 발음법)	… 81	제3장 올바른 표현			
		01 올바른 단어	… 294		
		02 올바른 문장	… 300		
		03 번역 표현	… 311		
		제4장 기출로 보는 문장(올바른 표현)	… 315		

●
공무원 합격을 향한 날개를 달아주는
이유진 나래국어

PART 05 의미

제1장 의미론	
01 언어와 의미	… 326
02 의미의 종류	… 326
03 단어 간의 의미 관계	… 327
04 의미의 변화	… 330
05 의미의 중복(중첩)	… 332
제2장 기출로 보는 의미	… 333

PART 06 높임법과 언어 예절

제1장 높임 표현	
01 높임법의 종류	… 342
02 높임법의 특징	… 343
제2장 언어 예절	
01 일반 인사말	… 346
02 편지 쓰기와 전화 예절	… 347
제3장 호칭어와 칭호	
01 가족과 관련된 어휘	… 349
제4장 기출로 보는 높임법과 언어 예절	… 356

PART 07 실용

제1장 외래어 표기법	
01 표기의 원칙	… 366
02 표기 일람표	… 368
03 표기 세칙	… 369
04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376
05 주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	… 379
제2장 기출로 보는 실용(외래어 표기법)	… 383

제3장 로마자 표기법

01 표기의 기본 원칙	… 388
02 표기 일람	… 388
03 표기상의 유의점	… 390

제4장 기출로 보는 실용(로마자 표기법)

… 396

PART 08 국어가 걸어온 길

제1장 고대 국어와 차자 표기

01 국어의 계통	… 402
02 차자 표기	… 403

제2장 중세 국어와 훈민정음

01 훈민정음(訓民正音) 제자 원리	… 405
02 중세 국어의 특징	… 408
03 교과서 중세 국어 수록 지문 분석	… 410

제3장 근대 국어

01 근대 국어의 특징	… 414
02 교과서 근대 국어 수록 지문 분석	… 414

제4장 고전 문법의 여러 가지 요소

01 고전 문법의 여러 가지 요소	… 417
--------------------	-------

제5장 기출로 보는 국어가 걸어온 길

… 419

바른 정답

… 430



PART
01

언어와 국어

- 제1장 언어
- 제2장 국어
- 제3장 한글
- 제4장 기출로 보는 언어와 국어

●
공무원 합격을 향한 날개를 달아주는
이유진 나래국어





언어

Part 1
언어와 국어

01 언어의 본질(本質)

-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 중 하나이며 언어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언어적 동물(Homo-loquens)이라고 한다.
- 언어의 내용은 의미이다. 즉, 언어는 사상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 언어의 형식은 음성(말소리)이다. 음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분절음(分節音)이다.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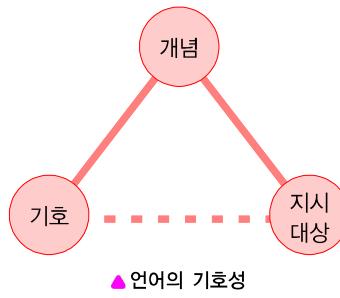
구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특징	제1차적 언어	제2차적 언어
표현 수단	음성(말)	문자(글)
감각	청각	시각
시간성	일회성(시간적 제약)	거의 영구적(오래 보존)
공간성(전달 범위)	좁음	넓음
실용성(의사 전달 수단)	직접적	간접적
수정	불가능	가능
일상생활	주요 수단	보조 수단

02 언어의 특성(特性)

1. 기호성(記號性) = 이원성(二元性)

★ **기호의 정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통틀어 ‘기호’라고 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 기호’이다. 언어는 개념(구체적인 사물에 해당하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공통적 요소를 추상한 내용)과 기호(개념을 표현한 수단인 형식)로 이루어진다.



2. 자의성(恣意性) = 임의성(任意性)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관계에 있다. 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가 독립되어 있다는 이원성(기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언어에서는 표현과 내용이 분리되지 않으며 이들의 관계는 일원적이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경우에 자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지만 언어의 자의성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1) 언어마다 같은 뜻을 표현하는 말소리가 다르고, 같은 언어의 방언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 집 - [하우스](영어), [메종](프랑스어), [자](중국어), [이에](일본어)



▲ 언어의 자의성

(2) 음성과 의미가 1:1로 대응하지 않는 동음이의어와 동의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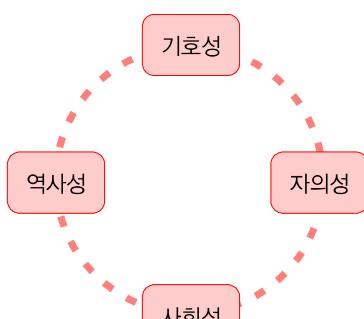
▣ • 동음이의어: 말[言] - 말[馬] - 말[斗]
• 동의어: 범 - 호랑이(虎狼0)

(3)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역사성▼)

(4)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약속이 필요하다. (사회성▼)

(5) 궁극적인 어원은 밝히기 어렵다.

▣ '히다', '푸르다', '불다'는 '해', '풀', '불'에서 비롯되었지만, '해', '풀', '불'의 어원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



▲ 언어의 주요 특성



★ 언어의 객관성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3. 사회성(社會性) = 불역성(不易性), 불변성(不變性)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의미와 형식의 연결을 왜곡하면 언어가 의사소통 도구의 자격을 잃게 된다.

☞ 원어로는 '셀룰러폰'이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핸드폰'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 언어의 역사성

어휘의 측면에서 제일 두드러지고, 동사적(문법적) 측면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4. 역사성(歷史性) = 가역성(可易性), 가변성(可變性)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성장·사멸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리나 의미, 형식적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 말의 생성과 소멸: 컴퓨터, 비행기, 우주선 / 어사, 즈믄(千), 뵐(山)

소리의 변화: 여름(15세기의 발음은 '녀름'), 열매(15세기의 발음은 '여름')

의미의 변천: 어엿보다(불쌍하다) ⇌ 예쁘다, 어리다(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문법의 변화: 중세 국어에 없던 주격 조사 '가'가 근대 국어에 생김.

5. 체계성(體系性) = 법칙성(法則性), 규칙성(規則性)

언어 기호가 모여서 일정한 의미를 전달할 때, 기호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며 일정한 질서 아래 실현된다. 음운 조작, 어휘 체계 등이 모두 언어의 체계적 단위들이다.

☞ 나는 어제 나래를 보려 갔다. (O) / 나는 어제 나래를 보려 가겠다. (X)

나는 나래 수업을 즐겼다. (O) / 즐겼다 나래 수업을 나는. (X)

6. 분절성(分節性) = 불연속성(不連續性)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쪼개어 표현한다. 또한, 단어와 단어 사이가 분절되는 것이나 자음과 모음이 나누어지는 것도 분절성에 해당한다.

☞ 외적 분절성: '뺨, 턱, 이마' 사이에 정확한 구획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적 분절성: 감기 - ㄱ / ㅏ / ㅁ // ㄱ / ㅣ

7. 추상성(抽象性)

언어의 개념은 동일한 부류의 사물들에서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다만 '세종, 이율곡' 등과 같은 고유 명사들은 지시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 개, 소, 말, 사자 ⇌ 태생이고 어미의 젖을 먹고 사람. ⇌ 포유류



고유 명사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 달' 따위는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에 속하지 않는 반면, '홍길동'과 같은 인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는 경우라도 고유 명사에 속한다. 한편 '홍길동'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라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8. 개방성(開放性) = 창조성(創造性), 생산성(生產性)

인간은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긴 문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언어를 통해서 상상의 산물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무한하게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상상의 산물: 유니콘, 악마, 천사
- 추상적 산물: 정의, 선

03 언어의 기능



1. 표현의 기능 = 정보 전달의 기능, 지시(指示)적 기능

말하는 이가 현실 세계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이나 듣는 사람 또는 지시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여부 등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 ▣ 이 쌀의 무게는 20kg이다. (화자의 사실적 판단)
이 만화는 참 재미있다.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영희는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여부)

2. 명령적 기능 =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감화(感化)되어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주로 명령문, 청유문의 형태로 실현되지만, 그 밖에 표어, 광고문, 선거 연설, 교통 표지판, 법률 등에서도 나타난다.

(1) 직접 지령: 명령문, 청유문

- ▣ 어서 학원에 가거라. 빨리 집으로 가자.

(2) 간접 지령: 명령문과 청유문 외(표어, 광고문, 선거 연설, 교통 표지판 등)

- ▣ 이 세탁기는 성능과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광고문)
그녀는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인입니다. (선거 연설)

★ 지령적 기능과 표현의 기능의 차이

'지령적 기능'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기능'과 별반 다르지 않으나, 이는 듣는 이에게 감화 작용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것)을 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친교적 기능 = 사교적 기능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 친근한 관계임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언어의 의미보다는 발화 상황이 중시된다. 예를 들어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식사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화창하군요.

4. 표출적 기능 = 정서적 기능

★ 표현의 기능과 표출적 기능

'표현의 기능'은 듣는 이를 염두, '표출적 기능'은 듣는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화 의도'에 있다.

말하는 사람이 표현이나 전달 의도가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내부 상태나 정신 작용을 드러내는 기능이다. 감탄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 에구머니나! 아이구, 아파!

5. 지식·정보 보존 기능

언어를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보존하고 축적하는 기능으로, 전달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어를 문자 언어로 기록하거나 음성 언어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식이나 정보의 보존에서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6. 관어적(關語的) 기능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는 기능이다. 이는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고 외국어를 배우며 특정한 지식을 체계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영어의 'father'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말이다.

7. 심미적(審美的) 기능 = 미학적(美學的) 기능, 시적(詩的) 기능, 미적(美的) 기능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발음하기 아름답게 다듬어 표현하려는 기능이다.

☞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음절 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연쇄법)



04 언어와 인간

1. 언어와 사고(思考)

(1) 언어 우위론(합리주의): 언어는 인간의 선천적 기능이며 언어가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하다.



언어 우위론의 3가지 견해

- 언어 상대성 이론: 같은 것을 보거나 들을 때 그것에 대한 인지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사피어(E.Sapir)의 견해: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 워프(B.Whorf)의 견해: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다르면 사고방식도 세계를 인지하는 것도 달라진다.

(2) 사고 우위론(경험주의): 언어는 인간이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후천적 기능이며 언어 이전에 사고가 존재한다.

(3) 비고츠키(Vygotsky)의 상호작용론: 언어와 사고는 상호 독립적 발달을 보이다가 점차 합쳐져,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는 사고에 의해 논리성을 획득한다.

2. 언어와 사회(社會) · 문화(文化)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언어 공동체’, ‘언중(言衆)’이라고 한다. 언어 공동체 속에서도 변이형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언어 변이의 사회적 요인에는 지리적 위치, 사회 계층, 성별, 세대 등이 있다.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는 언어로 축적되어 전승되고, 이는 다시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으며 언어 자체가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도상성

형식과 내용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뜻한다.

- ① 순서적 도상성: 시간적 순서나 우선성의 정도가 언어 구조에 반영
 - ▣ 출퇴근, 오르내리다, 앞뒤
- ② 거리적 도상성: 개념적 거리(심리적 거리)와 언어적 거리가 비례 관계를 형성
 -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근거

- 합리주의: 침팬지가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는 없다.
- 경험주의: 우리는 가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국어

Part 1
언어와 국어

01 국어의 개념

국어란 한 국가에서 공용어(公用語)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언어, 즉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어(國家語)이다. 한 국가 내에서는 하나의 국어가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02 국어의 분류

★ 알타이 어족(語族)

투르크어·몽골어·만주-통구스어가 서로 친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세 언어를 포함하여 부르는 명칭

★ 굴절어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경우 교착어와 달리 단어 자체의 형태 변화로 그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영어

★ 표의 문자(表意文字)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한자(漢字)

1. 계통상: 알타이 어족

'알타이'라는 명칭은 이들 언어를 사용하던 민족이 분열하기 전의 원주지(原住地)가 알타이 산맥 부근이었다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2. 형태상: 교착어(膠着語) = 첨가어(添加語) = 부착어(附着語) ⇔ 굴절어(屈折語)

교착어는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 단어를 파생시키거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3. 문자상: 표음 문자(表音文字), 음소(音素) 문자

(1) 표음 문자: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한글, 일본의 가타카나와 히라가나, 로마자

(2) 음소 문자: 개개의 글자가 단어의 음을 음소의 단위까지 분석하여 표기하는 문자

한글, 로마자

03 국어의 특질(特質)

1. 음운(音韻)상 특질

(1) 파열음[破裂音(ㄱ, ㄷ, ㅂ)]과 파찰음[破擦音(ㅈ)]은 예사소리[平音], 된소리[硬音], 거센소리[激音]의 세 갈래로 대립을 이룬다. = 삼지적 상관속

불[火] - 爐[角] - 풀[草]

(2) 다른 언어에 비해 단모음이 많다. (10개)

ㅏ, ㅓ, ㅗ, ㅓ, ㅜ, ㅓ, ㅡ, ㅓ, ㅣ

(3)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적다. (3개)

ㅅ, ㅆ, ㅎ

(4) 두음 법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 조화, 동화 현상 등이 있다.

- ▣ 두음 법칙: 녀자[여자], 양심[양심], 로동[노동]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밖[박], 꽃 안[꼬단]
- 모음 조화: 모아, 올망졸망, 졸졸, 줄줄
- 동화 현상: 맘며느리[만며느리], 강릉[강능], 신라[실라]

(5) 음상(音相)의 차이로 어감이 달라지고 의미가 분화되기도 한다.

- ▣ • 빙빙<뻥뻥>(펑펑, 아웅다웅<아웅다웅, 오순도순<오순도순
- 작다(小) – 적다(少), 머리(頭) – 마리(首)



의미의 분화

'의미의 분화'란 뜻 차이가 있고 의미 사이의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 '덜다'–'털다'는 '줄게 하다'라는 의미의 관련성, '마당'–'바탕'은 '터전'이라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뜻 차이가 있으므로 '의미가 분화된 경우'라고 말한다.
- 반면, '갈다'–'걸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없고 '뚱뚱그리다'–'뚱뚱그리다'는 뜻 차이가 없으므로 '의미의 분화'가 아니라 단순한 '어감의 차이'이다.

★ 음상의 차이

한 단어 안에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됨으로써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

2. 어휘(語彙)상 특질

(1) 한자어의 비중이 높다. (약 70%)

(2)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 ▣ 자다 – 주무시다, 먹다 – 잡수시다, 주다 – 드리다

(3) 성(性)이나 수(數)의 구별은 없다.

- ▣ 성: Coche(자동차) – 남성 명사, Noche(밤) – 여성 명사 [불어]
- 수: person(사람) – people(사람들), child(아이) – children(아이들)

(4)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 ▣ uncle – 아저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백부, 숙부, 외삼촌

(5)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하였다.

- ▣ 노렇다, 노르께하다, 노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

(6)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다.

- ▣ 의성어: 꼬끼오, 멍멍
- 의태어: 반찌반찌, 살살

(7) 관계 대명사, 관사, 접속사가 없다.

3. 문법(文法)상 특질

(1) 교착어(膠着語)에 속하는 우리말의 특성상 조사나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2)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공대(恭待) – 평대(平待) – 하대(下待) : 잡수시다 – 먹다 – 처먹다

(3)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으며, 단어의 평면적 결합이 두드러진다.

 ‘오르내리다, 겸푸르다’처럼 두 용언을 합하여 새로운 용언을 만들기도 하고, ‘검버섯, 덮밥’처럼 용언의 어간과 명사를 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들기도 한다.

(4) 문장 성분의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낫물이 남쪽으로 흐른다. = 남쪽으로 흐른다, 낫물이 = 흐른다, 낫물이 남쪽으로

(5) 맥락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 잦다.

 • 시장하지 않니? (주어의 생략)
• 배고파요.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

(6)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

 아름다운(수식어) 꽃(피수식어), 착한(수식어) 아이(피수식어)

(7) ‘주+목+술’, ‘주+부+술’, ‘주+보+술’의 어순으로, 서술어가 맨 끝에 온다.

 내가(주어) 밥(목적어) 먹다.(서술어)
기차가(주어) 빨리(부사어) 간다.(서술어)
물이(주어) 얼음이(보어) 되다.(서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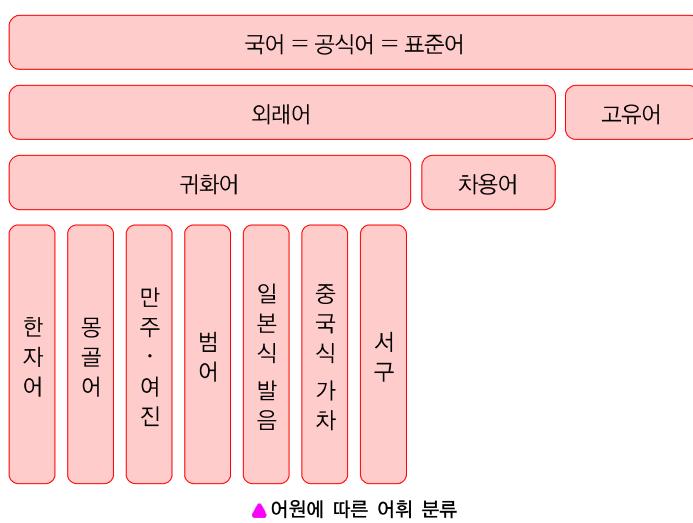
(8) 겹문장이 많다.

 토기는 앞발이 짧다.(서술절을 안은 문장)

04 국어의 어휘

★ 2017년 3월 개정으로 외래어 중 차용어를 외국어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나 교과 문법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 어원에 따라: 고유어와 외래어



(1) 고유어(固有語) = 토박이말

우리 민족이 본디부터 사용하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 고주망태(고조망태기), 고뿔('감기'의 우리말), 고샅(마을의 좁은 골목), 구라('거짓말'의 속된 말), 기장(옷의 길이), 생각, 에누리, 사리(국수, 실의 단위), 후미지다(구석지고 으슥하다)

(2) 외래어(外來語) = 들어온 말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어 한국어로서 사용되는 말

- 귀화어(歸化語) : 차용된 뒤 오랫동안 쓰이면서 고유어로 착각할 정도로 동화된 말

근원	예
한자어에서 온 말	붓(筆), 먹(墨), 종이(楮皮) / 김장(沈藏/陳藏), 상추(生菜), 김치(沈菜), 배추(白菜), 시금치(赤根菜), 고추(苦椒), 채소(菜蔬), 가지(茄子), 후추(胡椒) / 짐승(衆生), 점심(點心) / 평소(平素), 대강(大綱), 정녕(丁寧), 항상(恒常), 하필(何必), 무려(無慮), 유독(惟獨), 급기야(及其他), 도대체(都大體), 어차피(於此彼), 심지어(甚至於), 무진장(無盡藏), 도무지(塗貌紙), 순식간(瞬息間), 별안간(譬眼間), 좌우간(左右間), 흐지부지(諱之秘之)
한자어와 우리말의 결합	양(洋)파, 연(蓮)꽃, 칫(齒)솔, 살(鯀)풀이, 총각(總角)무, 산(生員)님, 호(胡)주머니 / 속내(內), 글자(字), 담장(牆), 개차반(茶盤) / 시(猜)샘하다, 용(湧)솟다 / 굳건(健)하다, 익숙(熟)하다, 말쑥(淑)하다, 마땅(當)하다, 튼실(實)하다, 대수(大事)롭다, 읊씨년(乙巳年)스럽다 / 적당(適當)히, 당연(當然)히, 조용(從容)히, 나중(乃終)에, 근근(僅僅)히
몽골어에서 온 말	말(馬), 가라말, 구령말 / 매(맷과의 새), 보라(매), 송골(매) / 수라(임금이 먹는 밥)
만주어 · 여진어에서 온 말	호미, 수수, 메주 / 가위 / 두만
범어에서 온 말	절, 중, 달마, 부처, 불타, 석가, 보살, 사리, 열반, 찰나, 탑, 나락
일본식 발음에서 온 말	고구마, 구두, 냄비, 가마니
중국식 가차(발음 차용)	구라파(歐羅巴 ⇨ 유럽), 이태리(伊太利 ⇨ 이탈리아), 불란서(佛蘭西 ⇨ 프랑스)
서구에서 온 말	고무, 담배, 뺨치산, 뺨, 가방, 노다지, 깅통, 깅파

- 차용어(借用語) :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외국어라는 의식이 조금 남아 있는 말

- 타이어, 밀크, 다다미, 닥터, 아르바이트, 템포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는 구체적인 기준 –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

- 쓰임의 조건: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특정한 담화에 한두 번 사용되고 말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조건
- 동화의 조건: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
 - 영어의 [f]와 [r] 소리가 우리말에서는 'ㅍ', 'ㄹ' 소리로 바뀐다.
 -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해서 쓰는 'shirt'가 국어에서는 늘 복수 형태로만 쓰인다.

2. 사회성에 따라: 표준어(標準語)와 방언(方言)



(1) 표준어

★ 표준어 설정

표준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1936년 조선어 학회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편찬한 데서부터이다.

① 표준어의 원칙: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준어의 제정 이유

-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
-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에 유리하다.
-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국어 순화에 도움이 된다.

③ 표준어의 기능

- 통일(統一)의 기능: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나라의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내부에서의 통일)
- 독립(獨立)의 기능: 통일된 한 언어를 씀으로써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같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도록 해 주는 구실을 한다. (외부로부터의 독립)
- 우월(優越)의 기능: 표준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방언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우위(優位)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낸다.
- 준거(準據)의 기능: 표준어는 국민이 모두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 규범이므로, 공적인 언어생활을 할 때 기준이 된다.

(2) 방언(方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

① 방언의 종류

- 지역 방언(= 사투리): 각 지역에 따라 다른 특징을 지닌 말
- 사회 방언: 사회 계층,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요인으로 생긴 말
 - 남성은 격식체, 여성은 비격식체를 많이 사용한다.
- 은어: 특수한 집단이나 계층에서 남아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별히 사용하는 비밀어
 - 왕초, 뜰마니
- 속어: 통속적이고 저속한 말
 - 큰집(교도소), 짹퉁(가짜)
- 비어: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 눈깔, 주둥아리

② 방언의 기능

- 각 지방 및 집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 나름의 독특한 체계와 정서를 지니고 있어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 비어와 속어의 차이

비어에는 관계 경색의 의도가 있어 상대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속어는 친분 관계를 전제로 대화의 탄력성을 위해 사용한다.

★ 방언에 대한 인식

일부 방언은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방언이란 표준어에 비해 수준이 낮고 불필요한 말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01 한글의 종류

- 문자는 그림 문자로부터 단어 하나가 문자 하나와 짹지어져 있는 표의(表意) 문자를 거쳐 표음(表音) 문자인 음절 문자, 음운 문자로 발달되어 왔다.
-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표음 문자 중에서도 자음, 모음 등으로 음절을 분석할 수 있는 단음 문자(單音文字, 음소 문자)이다. 단음 문자는 문자의 수효가 적다는 면에서 표의나 음절 문자에 비해 효율적이다.

02 한글의 여러 명칭

-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정음(正音), 언문(諺文)'은 세종 때부터 우리 글자를 지칭하는 말로 같이 쓰였다.
- '반절(反切)'이란 명칭은 중종 때(1527년) 간행된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 '국문(國文)'이란 명칭은 1894년 갑오개혁 후에 설치된 '군국기무처'에서 관제를 개혁하면서 종래의 언문을 국문이라 고쳐 부른 것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문이란 용어는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나타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 '한글'이란 명칭은 경술국치로 인해 대한 제국이 멸망하자 '국문'이란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 까닭에 새 명칭으로 창안된 것이다. 이는 주시경이 1913년경에 최초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글'이란 '한(韓) 나라의 글', '큰 글', '세상에서 첫째 가는 글'의 뜻으로 추정된다.

★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 28년(1446)에 간행된 순한문본의 훈민정음 해설서, 일명 《훈민정음 해례본》

★ 훈몽자회(訓蒙字會)

최세진이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지은 책으로 한자 3,360자를 종류별로 나누었으며 범례(凡例)와 본문(本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 및 순서를 규정하였다.

03 현재 한글의 사전 배열 순서

- 자음:** ㄱ, ㅋ / ㄴ / ㄷ, ㅌ / ㄹ / ㅁ / ㅂ, ㅃ / ㅅ, ㅆ / ㅇ / ㅈ, ㅉ / ㅊ, ㅋ, ㅌ, ㅍ / ㅎ
- 모음:** ㅏ, ㅑ / ㅓ, ㅕ / ㅗ, ㅕ / ㅜ, ㅘ, ㅕ / ㅡ, ㅕ, ㅚ / ㅣ, ㅟ / ㅔ, ㅖ, ㅟ / ㅠ / ㅡ / ㅓ / ㅣ

★ 자음 순서의 특징

- 원소리는 기본 자음 뒤
- 거센소리는 맨 뒤에 모임
- 거센소리는 'ㅊ'이 맨 앞
- 'ㅎ'은 예사소리지만 맨 뒤

★ 모음 순서의 특징

- 기본 모음 뒤에 '+ ㅣ'
- ㅗ, ㅏ, ㅓ, ㅕ, ㅡ, ㅣ(3)
- ㅜ, ㅓ, ㅕ, ㅡ, ㅣ(3)
- ㅘ/ㅕ(+0)
- ㅛ, (ㅓ), ㅣ



기출로 보는 언어와 국어

Part 1
언어와 국어

Tip

- 경험주의 = 행동주의
= 후천적 습득
- 합리주의
= 선형적 지식과 능력

01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주의적 입장이 아닌 것은? 2011. 국화직 8급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험주의적인 혹은 행동주의적인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주의적인 이론이다.

경험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떤 선천적인 능력에 의한 것 아니라 경험적인 훈련에 의해서 오로지 후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합리주의적인 언어 습득의 이론은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타고난 특수한 언어 학습 능력과, 일반 언어 구조에 대한 추상적인 선형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 ① 어린이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반복 연습과 시행 착오와 그 교정에 의해서 언어라는 습관을 형성한다.
- ② 언어 습득의 균일성이다. 즉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어린이가 예외가 없이 언어를 통달하게 된다.
- ③ 언어의 완전한 달통성이다. 즉 많은 현실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완전한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④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 ⑤ 언어가 극도로 추상적이고 고도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짧은 시일 안에 언어를 습득한다.

정답 해설

어린이가 백지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경험주의적 관점이다.

- 경험주의 = 행동주의: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떤 선천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훈련에 의해서 오로지 후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 합리주의: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타고난 특수한 언어 학습 능력과, 일반 언어 구조에 대한 추상적인 선형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Answer ↗

1. ①

02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지방직 9급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 정답 해설

지문 전체의 내용은 사고가 언어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지만, 밑줄 친 부분은 말이 모든 생각을 담을 수는 없다는 ‘사고우위론’의 관점이다. ↗ 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감동)를 이야기한 ③이 적절한 예이다.

▣ 오답 해설

- ① 어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필연적 발생은 없다. — 언어의 자의성
- ② 동일한 개념에 대한 언어가 나라마다 다르다. — 언어의 자의성
- ④ 언어는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 언어의 분절성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다. — 언어의 사회성

03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2008. 지방직 9급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혹은 임의적)이다. 밤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춰 주는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언어에서나 [달]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문]이라 하고 스페인어에서는 [루나], 헝가리어에서는 [홀드], 일본어에서는 [쓰키]라고 한다. 그것은 마치 붉은 교통 신호등이 정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붉은 색이 정지를 뜻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푸른색을 정지, 붉은색을 진행 표시로 정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약속으로 통용되기만 하면 된다. 교통 신호는 색깔로 진행이나 정지를 표시하지만, 언어는 말소리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소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뜻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라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수화(手話)는 손짓으로 뜻을 전하며 밤중에 항해하는 배들은 불빛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언어는 말소리로 뜻을 전달하며, 말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고 자의적이다.

- ①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
- ② ‘까닭’을 뜻하는 중세어 ‘전초’가 후대에 와서 사라졌다.
- ③ 한국 사람들은 수탉의 울음소리를 ‘꼬끼오’라고 한다.
- ④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는 ‘솔’이라고 한다.

▣ 정답 해설

제시문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닭’의 울음소리에 대한 표현은 언어권마다 다르다. 이런 의미로는 ‘의성어’가 자의성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의성어가 실제 소리에 가장 가까운 음성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자의성이 약하다. 닭 울음소리를 ‘빼약빼약’이라고 하는 언어권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소리와 뜻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이다. 한 가지 뜻을 나타내면서 다르게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언어의 뜻과 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에 의하여 알맞게 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Answer

2. ③ 3. ③

**Tip****★ 언어의 특성**

- Ⓐ 이원성 = 기호성: 형식(소리)과 내용(의미)의 체계가 분리 · 독립
- Ⓑ 자의성: 소리와 개념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 임의적, 관습적
- Ⓒ 사회성: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개인이 임의로 변형 불가
- Ⓓ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중도, 언중의 약속도 변화 가능
- Ⓔ 분절성: 연결된 것을 나누어 말할 수 있으며 언어 자체도 조립형
- Ⓕ 창조성 = 개방성: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관념적인 것도 표현 가능
- Ⓖ 체계성: 문법적 체계를 지님.
- Ⓗ 추상성: 같은 부류의 사물에서 공통 속성을 뽑아내는 추상화 과정

04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2013. 국가직 9급

-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조개어 나눌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실제로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말한다.

- ① 추상성

- ③ 분절성

- ② 자의성

- ④ 역사성

▣ 정답 해설

주어진 글은 언어의 '분절성'을 설명하고 있다. 언어를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조각할 수 있음은 '기호의 분절성'이고, 언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은 '개념의 분절성'이다.

④ 오답 해설

- ① 추상성: 어떠한 개념이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성
- ② 자의성: 언어 기호의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 ④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 기호의 음성과 의미,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

Tip**★ 질의응답 엿보기**

[물음] 정철의 〈장진주사〉를 보면 술을 먹자고 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로 사용된 언어의 기능이 '미적 기능'과 '지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면서 친분을 돋독히 하니까 '친교적 기능'도 사용되었다고 보면 안 되나요?

[답] 〈장진주사〉에서는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고 있을 뿐이지, 상대에게 인사말로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였다고 하여 '친교적 기능'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술을 마시면 친해진다.'라는 결과론적인 인식일 뿐 이 글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하겠지요.

Answer ↗

4, ③ 5, ⑤

05 다음 시조에는 언어의 시적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언어의 어떤 기능이 주로 사용되었는가? 2005. 국교직 8급

흔 盞 먹새그려. 쪘 흔 盞 먹새그려. 곳 것거 算 노코 無盡無盡 먹새그려.

이 봄 주근 後면 지게 우희 거적 더페 주리혀 미여 가나 流蘇寶帳의 萬人이 우리 네나,
어육새 속새 亂가나무 白楊 수페 가기곳 가며, 누른 히 흰 들 里는 비 굴근 눈 쇼쇼리 佛
불 제 뉘 혼잔 먹쟈 豚고. 旱를며 무덤 우희 진나비 佛 봄 제 뉘우춘들 엇더리.

- ① 표현적 기능

- ③ 친교적 기능

- ② 정보적 기능

- ④ 표출적 기능

- ⑤ 지령적 기능

▣ 정답 해설

초장을 보면, '먹새그려'라는 청유형의 어구를 반복하여 상대에게 어떤 상황을 권유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시조는 언어의 '지령적 기능(감화적 기능, 환기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 두드러지고, 사설시조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면 언어의 '미적 기능(미학적 기능, 시적 기능)' 역시 잘 나타난다 할 수 있다.

06 국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2006. 서울시 9급

- ① 파열음 계열의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가지 대립을 보인다.
- ② 굴절어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였다.
- ③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자리바꿈이 가능하다.
- ④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하였다.
- ⑤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쪽에 위치하며, 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형식을 나타낸다.

▣ 정답 해설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라 교착어이다.

07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7. 경찰1차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② 조사와 어미가 별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 ③ 음절 초에 ‘ㄱ’, ‘ㄷ’, ‘ㅂ’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 정답 해설

우리말은 존재 중심(주제 중심)의 언어이다. 소유 중심(주어 중심)의 언어는 영어식 표현이다.

▣ 오답 해설

- ① 삼지적 상관속은 ‘평음—경음—유성음’이 아니라 ‘평음—경음—격음’이다.
- ② 국어는 ‘굴절어’가 아닌 ‘교착어(=부착어, 침가어)’이다.
- ③ ‘ㄱ’, ‘ㄷ’, ‘ㅂ’ 등은 각각 된소리이므로 하나의 자음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08 밑줄 친 말 중 한자어가 아닌 것은? 2014. 사회복지직 9급

- ① 하필 오늘 올 것이 뭐람.
- ② 하여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 ③ 물론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 ④ 설마 그가 나를 벌써 잊지는 않았겠지?

▣ 정답 해설

‘설마’는 고유어이다.

▣ 오답 해설

‘하필(何必), 하여간(何如間), 물론(勿論)’은 한자어이다.

Tip

★ 언어의 형태론적 분류

1. 첨가어(添加語) = 교착어
(膠着語), 부착어(附着語)
 - 뜻을 나타내는 말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덧붙는 언어이다.
 -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분리하기가 쉽다.
2. 굴절어(屈折語) = 굽곡어
(屈曲語)
 - 어형의 일부가 변화한다. 즉, 단어 자체의 변형이 일어난다.
 - 어간과 어미, 또는 접사적 기능을 하는 말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 어형 자체에 격, 품사 등을 나타내는 요소가 포함된다.

Tip

★ 주제 중심 언어 vs. 주어 중심 언어

- 주제 중심 언어는 모든 문장 성분이 주제어가 될 수 있으며, 주어 생략이 가능한 반면, 주어 중심 언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긴밀한 문법적 관계가 있어 주어가 서술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 주제 중심 언어는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 나에게는 날동생이 있다.
- 주어 중심 언어는 소유 중심의 언어이다.

I have a brother.

Answer

6. ② 7. ④ 8. ④

09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고유어인 것은? 2013, 국화직 8급

- ① 그녀는 운전면허 시험에 또 떨어져서 창피했다.
- ②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 ③ 나는 바지 기장을 줄여서 입었다.
- ④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다.
- ⑤ 그는 모자를 벗어 가방 속에 넣었다.

▣ 정답 해설

'기장'은 '옷의 길이'라는 뜻의 고유어이다.

⊕ 오답 해설

- ① 창피(猖披)
- ② 담배 〈일〉tabako 〈예〉tabaco
- ④ 냄비 〈일〉nabe
- ⑤ 가방 〈일〉kaban[鞆] 〈네〉kabas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뺑,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낚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 정답 해설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는 한자어, '하늘, 바람'은 고유어이다.

⊕ 오답 해설

- ② '학교(學校), 공장(工場), 도로(道路), 자전거(自轉車), 자동차(自動車)'는 모두 한자어이다.
- ③ '고무'는 프랑스어 'gomme'에서 유래한 말이고, '담배'는 일본어 'tabako' / 스페인어 'tabaco'에서 유래한 말이다. '가방'은 일본어 'kaban'에서 유래한 말이며, '뺑'은 포르투칼어 'pão'에서 유래한 말이며, '냄비'는 일본어의 'nabe'에서 유래한 말이다.
- ④ '눈깔'은 '눈알'을, '아가리'는 '입'을, '주둥아리'는 '짐승의 입이나 부리'를, '모가지'는 '목'을, '대가리'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Answer ↗

9. ③ 10. ①

11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 2016. 서울시 7급

혼종-어(混種語)[혼 : --] 『명사』『언어』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 | | |
|-----------------|-----------------|
| ① 각각, 무진장, 유아무야 | ② 과연, 급기야, 막무가내 |
| ③ 의자, 도대체, 언감생심 | ④ 양파, 고자질, 가지각색 |

▣ 정답 해설

영(洋)+파(고유어), 고자(告者)+-질(고유어), 가지(고유어)+각색(各色)

④ 오답 해설

①, ②, ③은 모두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어휘로, 혼종어가 아니다.

① 각각(各各), 무진장(無盡藏), 유아무야(有耶無耶)

② 과연(果然), 급기야(及其也), 막무가내(莫無可奈)

③ 의자(椅子), 도대체(都大體), 언감생심(焉敢生心)

12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2012. 지방직 7급

- ①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② 한글은 개 짖는 소리, 학 우는 소리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
- ③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④ 현재 우리말에는 과거 몽골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 정답 해설

외래어 중 귀화어(歸化語)는 우리말처럼 굳어 버린 말이다. 귀화어에는 한자어, 몽고어, 만주어, 범어, 일본에서 온 말들이 있다. ‘가라말’, ‘구령말’, ‘수라’, ‘보라매’, ‘송골매’ 등이 몽고어에서 온 대표적인 말들이다.

④ 오답 해설

① ‘세계 기록 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문화유산이다.
② 어떤 문자도 의성어를 소리 그대로 적을 수 없다. 단지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 어떤 소리건 좀 더 원음에 가깝게 적을 수 있는 장점이 두드러진 문자일 뿐, 소리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국어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



★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

등재 연도	유산명
1997	훈민정음 해례본: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아닌 책으로서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2001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
2009	동의보감
2011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3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	한국의 유교책판, KBS 특별 방송 ‘이산기록을 찾습니다’ 기록물



★ 사전 등재 순서

초성 > 종성 > 종성

- 자음: ㄱ, ㅋ / ㄴ / ㄷ, ㅌ / ㄹ / ㅁ / ㅂ, ㅍ / ㅅ, ㅆ / ㅈ, ㅊ, ㅉ, ㅋ, ㅌ, ㅍ / ㅎ
- 모음: ㅏ, ㅐ / ㅑ, ㅒ / ㅓ, ㅕ, ㅕ / ㅗ, ㅘ, ㅕ / ㅜ, ㅛ, ㅕ / ㅡ / ㅣ

Answer

11. ④ 12. ④ 13. ④

13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2014. 서울시 9급

- ① 두다, 뒤켠, 뒤뜰, 따뜻하다
- ② 내냠, 네모, 넘기다, 널리리
- ③ 얹다, 엇되다, 여름, 에누리
- ④ 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 정답 해설

- ① 두다, 뒤켠, 뒤뜰, 따뜻하다 ⇒ 두다 > 뒤뜰 > 뒤켠 > 따뜻하다
- ② 내냠, 네모, 넘기다, 널리리 ⇒ 내냠 > 넘기다 > 네모 > 널리리
- ③ 얹다, 엇되다, 여름, 에누리 ⇒ 엇되다 > 얹다 > 에누리 > 여름



PART
02

소리

- 제1장 음운론
- 제2장 기출로 보는 소리(음운론)
- 제3장 표준 발음법
- 제4장 기출로 보는 소리(표준 발음법)

●
공무원 합격을 향한 날개를 달아주는
이유진 나래국어





음운론

Part 2
소리

01 음성과 발음 체계

1. 음성(音聲)

★ 음성과 음향의 차이

- 음성: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이며 자음과 모음으로 쪼갤 수 있는 분절음(分節音)
- 음향: 자연계의 소리인 비분절음(非分節音)

▶ 음운과 음성

음운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학의 단위• 말의 뜻을 변별해 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 비슷한 음성군을 인정하는 추상적·관념적·심리적인 말소리• 일정한 체계를 이루는 소리• 역사적·전통적인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학의 단위• 발음 기관을 통해 다양하게 발음되는 구체적인 소리• 개별적·물리적인 말소리• 일반적인 사람의 말소리• 순간적·임시적인 소리

2. 발음 체계

(1) **말소리의 생성**: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 후두, 후두개, 목 안, 입안, 코안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기관의 작용을 거쳐 생성된다.

(2) **발음(發音) 기관**: 발음 기관은 조음(調音) 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말소리를 만드는 데 작용하는 여러 기관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 중, 조음부에서 구체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

- ① **조음부**: 서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 ① **고정부(조음점)**: 조음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조음체의 상대역만 하는 부분으로 입천장, 윗니, 윗잇몸, 윗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② **능동부(조음체)**: 조음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아랫입술, 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조음(調音)

성문을 통과한 소리를 입안 어디에서 막든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이른다.

02 음운(音韻)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가 음운(音韻)이다. 따라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02

1. 음운의 변별

- (1) 초성 발/말 : 'ㅂ'과 'ㅁ'으로 뜻이 분화(=변별)된다.
- (2) 중성 발/벌 : 'ㅏ'와 'ㅓ'로 뜻이 분화된다.
- (3) 종성 발/밤 : 'ㄹ'과 'ㅁ'으로 뜻이 분화된다.
- (4) 장단 밤(夜)/밤(栗) : [밤]과 [밤:]으로 뜻이 변별된다.



변이음(變異音)

동일한 음운이지만 환경에 따라, 즉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음을 뜻한다. 변이음은 비슷한 소리이며, 음운처럼 뜻을 구별해 주는 일은 하지 못한다. 변이음이 실현되는 환경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들은 상보적(相補的) 분포를 이룬다.

- '바지'의 'ㅂ'은 목청울림이 없는 소리
 - '할아버지'의 'ㅂ'은 목청울림이 있는 소리
 - '납'의 'ㅂ'은 막힌 공기가 터지지 않고 나는 소리
- ⇒ 즉, 'ㅂ'은 각각 형태소의 첫소리, 모음 사이, 형태소의 끝소리에서 서로 다른 음성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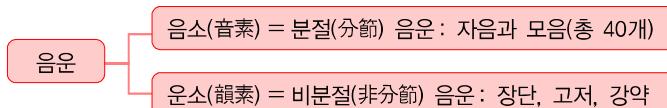


문제로 확인하기

다른 단어와 최소 대립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날 ② 살 ③ 말 ④ 델

2. 음운의 종류



운소(韻素)

말소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길이, 높이, 세기, 억양 등을 말한다. 이들은 단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분절음, 특히 모음에 얹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이들을 '초분절음' 혹은 '비분절음'이라고 한다. '음운'은 바로 '음소'와 '운소'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문제로 확인하기

다음 중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는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말 ② 눈 ③ 밥 ④ 밤

★ 상보적(相補的) 분포

= 배타적(排他的) 분포

한 쌍의 언어음이니 언어 형식에서,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일

- 조사 '을' / 를 : 마지막 음운이 자음일 경우 '을'을 쓰며, 모음일 경우 '를'을 쓴다.

★ 최소 대립쌍

최소한의 음소로 의미가 달라진 단어의 쌍

Answer

- 문제로 확인하기 ④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ㅏ'와 'ㅓ'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초성만 달라 최소 대립쌍을 이루고 있지만, '델'은 초성 'ㄷ'과 종성 'ㅓ'가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 문제로 확인하기 ③

- '밥'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지 않는다.
- ① 일(日)[말 :], 말(馬)[말]
- ② 눈(雪)[눈 :], 눈(眼)[눈]
- ④ 밤(栗)[밤 :], 밤(夜)[밤]

03 음운의 체계

1. 모음(母音) (단모음 10개 + 이중 모음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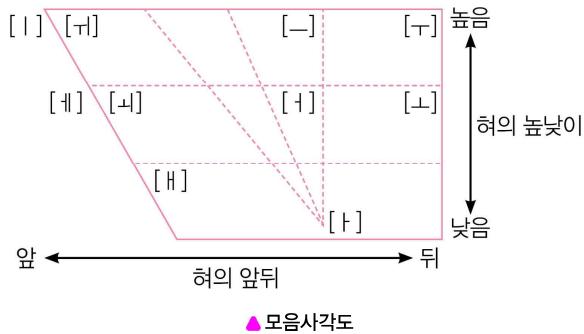
모음의 소리는 목청을 떨면서 난 소리가 목 안과 입안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공깃길의 모양으로 결정된다.

(1) 소리 나는(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 ① 전설 모음(前舌母音):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에 발음되는 모음
◀ |, ㅔ, ㅐ, ㅓ, ㅏ
- ② 후설 모음(後舌母音):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에 발음되는 모음
◀ ㅡ, ㅓ, ㅗ, ㅜ, ㅓ

(2) 혀의 높낮이(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 ① 고모음(高母音) = 폐모음(閉母音):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모음
◀ |, ㅔ, ㅡ, ㅜ
- ② 중모음(中母音): 고모음보다 입이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
◀ ㅓ, ㅏ, ㅓ, ㅗ
- ③ 저모음(低母音) = 개모음(開母音):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가장 낮은 모음
◀ ㅐ, ㅓ



(3) 입술 모양에 따라

① 원순 모음(圓脣母音): 발음할 때에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모음

예 노, 쇠, 터, 꾸

② 평순 모음(平脣母音): 발음할 때에 입술을 평평하게 하여 내는 모음

예 투, 우, 아, 켜, 이, 이

(4) 소리의 변화 유형에 따라

① 단모음(單母音):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

▶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ㄱ	—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② 이중 모음(二重母音):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서 발음되는 모음(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모음)



이중 모음의 체계

- 상향 이중 모음: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 모음
- 하향 이중 모음: 단모음이 앞에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 모음

상향 이중 모음	반모음 'ㅣ(j)' + 단모음	ㅑ, ㅕ, ㅛ, ㅠ, ㅘ, ㅕ
	반모음 'ㅗ/ㅜ(w)' + 단모음	ㅕ, ㅘ, ㅕ, ㅕ, ㅕ
하향 이중 모음	단모음 + 반모음 'ㅣ(j)'	ㅓ

0(X)로 확인하기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
-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모음이다. ()

★ 이중 모음(二重母音)

-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 혀가 'ㅣ'의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갈 때에 발음되는 반모음은 '반모음 ㅣ(j)'이고, 'ㅗ/ㅜ'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에 발음되는 반모음은 '반모음 ㅗ/ㅜ(w)'이다.

★ 반모음(半母音)의 특성

-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다.
- 반모음은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운전한 모음이 되지는 못한다.
- 반모음은 조음의 동작 속도가 빨라서 길이가 짧고 미끄러지는 소리를 낸다.

Answer

— O×로 확인하기 1. O 2.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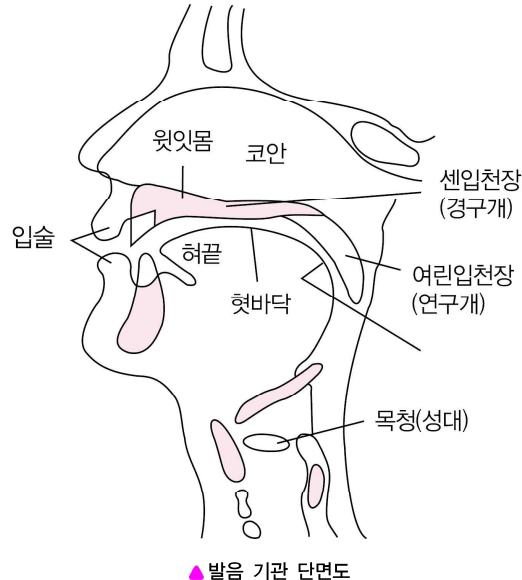
-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장애를 받고 만들어지는 소리는 자음이다.
-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모음이다.

2. 자음(子音) (기본 자음 14개 + 된소리 5개)

자음은 공깃길의 어느 지점을 막거나 좁혀서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내는 소리이다. 따라서 한 자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 받는 자리와 방해 받는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I) 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라

- ① 입술소리[순음(脣音)]: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ㅂ, ㅃ, ㅍ, ㅁ
- ② 잇몸소리[치조음(齒槽音)]: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ㄴ, ㄷ, ㅌ, ㄹ, ㅅ, ㅆ
- ③ 선입천장소리[경구개음(硬口蓋音)]: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ㅉ, ㅊ
- ④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軟口蓋音)]: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ㄱ, ㄲ, ㅋ, ㅇ
- ⑤ 목청소리[후음(喉音)]: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ㅎ



(2)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 ① **파열음(破裂音)**: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예) ㅂ, ㅃ, ㅍ / ㄷ, ㄸ, ㅌ / ㄱ, ㄲ, ㅋ
- ② **마찰음(摩擦音)**: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예) ㅅ, ㅆ, ㅎ
- ③ **파찰음(破擦音)**: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즉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 소리
예) ㅈ, ㅉ, ㅊ
- ④ **비음(鼻音)**: 여린입천장과 목젖을 내려 콧길을 열어 놓은 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예) ㄴ, ㅁ, ㅇ
- ⑤ **유음(流音)**: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예) ㄹ

(3) 목청 울림 유무에 따라

- ① **울림소리[유성음(有聲音)]**: 발음할 때에 목청의 떨림이 있는 소리
예) ㄴ, ㄹ, ㅁ, ㅇ
- ② **안울림소리[무성음(無聲音)]**: 발음할 때에 목청의 떨림이 없는 소리
예)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4) 소리의 세기에 따라

무성음(안울림소리)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예사소리(平음)**: 구강 내부의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파열되는 음
예) ㄱ, ㄷ, ㅂ, ㅅ, ㅈ, ㅎ
- ② **된소리(경음)**: 후두(喉頭) 근육을 긴장하거나 성문(양쪽 성대 사이의 좁은 틈)을 폐쇄하여 내는 음
예) ㄲ, ㄸ, ㅃ, ㅆ, ㅉ
- ③ **거센소리(격음 · 유기음)**: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예) ㅋ, ㅌ, ㅍ, ㅊ



문제로 확인하기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약간 틈을 벌려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가 첫소리인 것은?

- ① 발 ② 날 ③ 잘 ④ 쌀

★ 파열음(破裂音)의 명칭

'파열음'은 막혔던 공깃길을 터뜨려 연다는 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공깃길을 막아서 내는 소리'라는 점을 중시하여 '폐쇄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nswer



문제로 확인하기 ③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약간 틈을 벌려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다. 'ㅈ, ㅉ, ㅊ'이 파찰음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첫소리에 포함된 '잘'이 정답이다.

▶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가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마찰음	거센소리		ㅊ		
울림 소리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04 음운의 변동

1. 음운의 변동의 개념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변동의 결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절음 차원의 변동 양상에 따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거나, 변동이 발생하는 음운론적 동기에 따라 ‘동화와 이화’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운 변동

교체(交替)	축약(縮約)	탈락(脱落)	첨가(添加)
특정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	두 음운 중에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형태소 합성될 때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2. 음운의 변동 현상



▲ 음운의 변동 현상



(I) 음운의 교체(대치)

특정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뜻한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자리(종성, 받침)에서 모든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음 19개 중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의 자음을 제외한 것들과 겹받침 소리의 자음 11개는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음절 끝소리 ‘ㅂ, ㅍ’ \Rightarrow [ㅂ]

※ 例 잎[입]

㉡ 음절 끝소리 ‘ㄷ, ㅌ, ㅅ, ㅆ, ㅈ, ㅊ, ㅎ’ \Rightarrow [ㄷ]

※ 例 낮[남], 히읗[히을]

㉢ 음절 끝소리 ‘ㄱ, ㄲ, ㅋ’ \Rightarrow [ㄱ]

※ 例 밖[박]

② **자음 동화(子音同化)**: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 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으로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 **비음화(鼻音化)**: 받침으로 쓰이는 파열음(ㄱ, ㄷ, ㅂ)이나 유음(ㄹ)이 비음(ㄴ, ㅁ)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비음화의 결과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고 조음 방법만 바뀌어서 발음된다.

$$\begin{array}{c} \text{파열음} \\ (\text{ㄱ}, \text{ㄷ}, \text{ㅂ}) \end{array} +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ㄴ}, \text{ㅁ})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ㄴ}, \text{ㅁ}, \text{ㅇ}) \end{array} +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ㄴ}, \text{ㅁ}) \end{array}$$

※ 例 국물[궁물], 맘며느리[만며느리], 받는다[반는다], 밥물[밥물]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ㅁ}, \text{ㅇ}) \end{array} + \begin{array}{c} \text{유음} \\ (\text{ㄹ})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ㅁ}, \text{ㅇ}) \end{array} +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ㄴ}) \end{array}$$

※ 例 담력[담 : 넉], 침략[침 : 낙], 강릉[강능]

$$\begin{array}{c} \text{파열음} \\ (\text{ㄱ}, \text{ㄷ}, \text{ㅂ}) \end{array} + \begin{array}{c} \text{유음} \\ (\text{ㄹ})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ㄴ}, \text{ㅁ}, \text{ㅇ}) \end{array} + \begin{array}{c} \text{비음} \\ (\text{ㄴ}) \end{array}$$

※ 例 막론[망논], 협력[협녁]

★ 겹받침 중 하나가 남아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에 해당한다.

★ 유음화의 예외

한자어 중에서 2음절의 어휘와 접미사적 성격을 지닌 한자가 결합할 때, ‘ㄴ’과 ‘ㄹ’이 만나지만 [ㄴㄴ]으로 발음되는 예들이 있다.

☞ 의견린[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량], 결단력[결단력] 등

㉡ 유음화(流音化) : ‘ㄴ’이 앞이나 뒤에 위치한 유음 ‘ㄹ’의 영향으로 발음이 ‘ㄹ’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a) 순행적 유음화

$$\text{유음} \quad + \quad \text{비음} \quad \Rightarrow \quad \text{유음} \quad + \quad \text{유음}$$

$$(ㄹ) \qquad \qquad (ㄴ) \qquad \qquad (ㄹ) \qquad \qquad (ㄹ)$$

☞ 달님[달림], 별나라[별 : 라라], 줄넘기[줄럼끼], 칼날[칼랄]

(b) 역행적 유음화

$$\text{비음} \quad + \quad \text{유음} \quad \Rightarrow \quad \text{유음} \quad + \quad \text{유음}$$

$$(ㄴ) \qquad \qquad (ㄹ) \qquad \qquad (ㄹ) \qquad \qquad (ㄹ)$$

☞ 난로[날 : 로], 천리[철리], 신라[실라]

★ | | 모음 역행 동화와 순행 동화의 차이

-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 모음 역행 동화
⇒ 교체 = 대치
- 후설 모음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중 모음이 되는 ‘|’ 모음 순행 동화 ⇒ 첨가

★ 표준어로 쓰이는 ‘|’ 모음 역행 동화

‘|’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단어들 중에서 표준어로 채택되어 쓰이는 낱말이 있다.

☞ 님비, 멋-쟁이, 서울-내기, (불을) 냉기다, 동탱이치다

③ 모음 동화(母音同化) :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도 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모음 동화가 일어날 때 변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이고 다른 성질, 즉 혀의 높낮이나 입술 모양은 원래대로 유지된다.

모음 동화에는 앞 음절의 후설 모음이 뒤 음절의 ‘|’ 모음의 전설성에 이끌려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 모음 역행 동화와 뒤 음절의 후설 모음이 앞 음절의 ‘|’ 모음성에 이끌려 이중 모음 ‘ㅋ, ㅌ’으로 바뀌는 ‘|’ 모음 순행 동화가 있다. 단, ‘|’ 모음 순행 동화는 교체가 아니라 첨가로 본다.

• ‘|’ 모음 역행 동화(전설 모음화)

$$\text{후설 모음} \quad + \quad \text{전설 모음} \quad \Rightarrow \quad \text{전설 모음} \quad + \quad \text{전설 모음}$$

$$(ㅏ, ㅓ, ㅗ, ㅜ, ㅡ) \qquad (ㅣ) \qquad (ㅐ, ㅔ, ㅚ, ㅟ, ㅣ) \qquad (ㅣ)$$

‘|’ 모음 역행 동화는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음운 변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어 규정 제9항에서는 ‘|’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한 발음을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아지랑이 ⇒ [아지랭이 ×, 아지랑이 ○], 어미 ⇒ [애미 ×, 어미 ○], 아비 ⇒ [애비 ×, 아비 ○]



동화 작용에 따른 분류

1. 동화의 방향에 따라

- 순행 동화 :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뒤의 음운이 변함 **☞** 종로[종노]
- 역행 동화 :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의 음운이 변함 **☞** 신라[실라]
- 상호 동화 : 앞, 뒤의 음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 변함 **☞** 독립[동닙]

2. 동화의 정도에 따라

- 완전 동화 : 두 음운이 같은 소리로 발음됨 **☞** 밥풀[밤풀]
- 불완전 동화 : 두 음운이 비슷한 소리로 발음됨 **☞** 국풀[궁풀]

- ④ 구개음화(口蓋音化):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ㅑ, ㅑ, ㅕ, ㅕ’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에 속한다.

비구개음(ㄷ, ㅌ) + ‘ㅣ’나 ‘반모음 ㅣ(j)’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 구개음(ㅈ, ㅊ) + ‘ㅣ’나 ‘반모음 ㅣ(j)’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 해돋이[해도지], 굽이[구지], 같이[가치], 끌이[꼬치]

⑤ 된소리되기(경음화 현상)

- ① 받침 ‘ㄱ(긱, ㅋ, ㄲ, ㅋ), ㄷ(ㅅ, ㅆ, ㅈ, ㅊ, ㅌ), ㅁ(ㅍ, ㅃ, ㅍ, ㅂ)’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옷고름[온꼬름], 국밥[국밥], 덮개[덥깨], 넓죽하다[넙쭈카다]
- ② [ㄹ]로 발음되는 어간 받침 ‘래, ㄹ’이나 관형사형 ‘-ㄹ’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 ☞ 넓게[넓께], 할다[할따], 할 것을[할꺼슬]
- ③ 끝소리가 ‘ㄴ(ㄴ), ㅁ(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활용 어미가 이어지면 그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 ☞ 신고[신 : 꼬], 더듬지[더듬찌]

(2) 음운의 첨가(添加)

①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 ①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니, 녀, 뉴, 뉴’로 발음될 수 있다.
 - ☞ 꽃+잎 ⇨ [꼰닙], 눈+요기 ⇨ [눈뇨기],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한녀름]
- ②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ㅁ,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 ☞ 코+날 ⇨ 콧날[콘날], 수도 + 물 ⇨ 수돗물[수돈물]
- ③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ㅣ’나 ‘반모음 ㅣ(j)’으로 시작될 때에는 ‘ㄴ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 ☞ 나무+잎 ⇨ 나뭇잎[나문잎], 깨+잎 ⇨ 깻잎[깬닙]
 - ☞ ②과 ③의 경우 덧난 소리에 대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한글 맞춤법 제30항 참고)

② 된소리가 나는 경우(표준 발음법 제18항)

- ①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수 있다.
 - ☞ 초+불 ⇨ 촛불[초뿔/周恩], 배+사공 ⇨ 뱃사공[배싸공/뱐싸공]
 - ☞ 이 경우 덧난 소리에 대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한글 맞춤법 제30항 참고)
 사이시옷은 본래 음운이 아니지만, 이 경우 사이시옷을 대표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②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적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 문+고리 ⇨ 문고리[문꼬리], 눈+동자 ⇨ 눈동자[눈뚱자], 길+가 ⇨ 길가[길까], 술+잔 ⇨ [술짠], 아침+밥 ⇨ 아침밥[아침빠], 잠+자리 ⇨ 잠자리[잠짜리], 강+가 ⇨ 강가[강까], 등+불 ⇨ 등불[등빠]

★ 밟을[바출 X, 바틀 O],
 논이랑 밭이랑[노니랑 바치랑],
 밭 + 이랑(밭의 고랑 사이에 틈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바치
 랑 X, 반니랑 O]


사잇소리 현상은 수의적 현상

사잇소리 현상은 예외가 많은 수의적 현상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음운 조건임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 혼잣말[혼잔말] — 인사말[인사말]

(3) 'ㅣ' 모음 순행 동화(반모음 첨가)
★ 'ㅣ' 모음 순행 동화의 허용

학교 문법에서는 'ㅣ' 모음 순행 동학에 대하여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만 인정하였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다.

전설 모음 (ㅣ)	+	후설 모음 (ㅓ, ㅗ)	⇒	전설 모음 (ㅣ)	+	전설 모음 (ㅋ, ㅍ)
--------------	---	-----------------	---	--------------	---	-----------------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한 'ㅣ' 모음 순행 동화의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고 있다.(표준 발음법 제22항)

▣ 되어 ⇒ [되어/되여], 피어 ⇒ [피어/피여], 이오 ⇒ [이오/이요], 아니오 ⇒ [아니오/아니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① 집일

② 빗물

③ 법학

④ 길가

(3) 음운의 축약(縮約)과 탈락(脱落)
★ 자음 축약을 일으키는 'ㅎ'

'ㅎ'은 중세에는 거센소리였으나, 예사소리였던 'ㅋ(여린 히를)'이 사라지자 예사소리가 되었다. 과거 거센소리였던 자질이 남아 거센소리 되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사소리 (ㄱ, ㄷ, ㅂ, ㅈ)	+	ㅎ	⇒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	---	---	---	----------------------

▣ 국화[구과], 맘형[마팅], 닫히다[다치다], 입학[이팍]

㉡ 모음 축약(반모음화): 'ㅣ'나 'ㅗ, 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는 현상을 뜻한다.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모음화라고도 한다. 이처럼 모음 축약은 둘 이상의 음소가 하나로 결합됨으로 인해 음절 수가 감소하는 음절 축약이다. 발음상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 보+야 ⇒ 봄[봄 :], 뜨이다 ⇒ 띠다[띠 : 다], 오+야서 ⇒ 와서[와서]


모음 축약이 일어난 단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쓰이어 ⇒ [쓰여]

② 가지어 ⇒ [가져] ⇒ [가저]

③ 먹이어 ⇒ [먹여] ⇒ [머겨]

④ 담그아 ⇒ [담가]

② 음운의 탈락(脫落): 인접한 두 음이 마주칠 때 그 가운데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을 탈락이라고 한다. 이에는 ‘자음군 단순화’와 ‘ㄹ’ 탈락, ‘ㅎ’ 탈락, ‘-’ 탈락, ‘동음’ 탈락 등이 있다.

⑦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a) ‘ㄱ, ㄴ, ㅎ, ㅋ, ㅌ, ㅍ’은 첫째 자음만 발음된다.

■ 넉[넉], 암대[안따], 골[꼴], 훨다[할따], 겁[겁]

(b) ‘ㄹ, ㅁ’은 둘째 자음만 발음된다.

■ 암[암 :], 읊다[읍따]

(c) ‘ㄱ, ㅋ’은 불규칙적이다.

■ 맑[닭], 맑대[막따], 맑고[맡꼬] –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나, ‘ㄺ’이 용언의 어간 말음일 경우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밟다[밥 : 따], 넓다[널따], 넓둥글다[넓뚱글다], 넓적하다[넓찌카다] – ‘밟-’은 자음 앞에서 [밥 :]으로 발음한다. 또한 ‘넓다’의 경우 [널]로 발음하여야 하나,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 ‘넓’으로 표기된 것은 [넙]으로 발음한다.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에 해당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둘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현상은 음절 말음에서 일어나고 음운 변동의 결과가 7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자음 중의 하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ㄹ’ 탈락: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받침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거나 ‘ㄹ’ 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받침 ‘ㄹ’이 그 뒤의 어미 ‘-ㄴ, -ㅁ, -ㅅ, -오, -으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ㄹ’ 규칙 활용)으로, 표기에 반영한다.

■ 솔+나무 ⇒ 소나무, 달+달+이 ⇒ 딸데이, 물+소 ⇒ 무소, 바늘+-질 ⇒ 바느질
만들-+니 ⇒ 만드니, 만들-+-습니다 ⇒ 만듭니다, 만들-+-시오 ⇒ 만드시오, 만들-+-오 ⇒ 만드오

㉢ ‘ㅎ’ 탈락: 용언의 어간 말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으로,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좋-+-은 ⇒ 좋은[조 : 은], 않-+-아 ⇒ 않아[아나], 싫-+-으면 ⇒ 싫으면[시르면]

㉣ ‘-’ 탈락: ‘-’가 ‘-/-’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나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크-+-어서 ⇒ 커서[커서], 담그-+-아도 ⇒ 담가도[담가도], 치르-+-어 ⇒ 치리[치라]

㉤ 동음 탈락(‘ㅏ’, ‘ㅓ’ 탈락):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가 같은 자음이거나, 앞말의 모음과 뒷말의 모음이 같은 모음일 때 탈락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 가-+-아서 ⇒ 가서[가서], 가-+-았-+-다 ⇒ 갔다[같따], 켜-+-어서 ⇒ 켜서[켜서]



문제로 확인하기

탈락 현상이 일어난 단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날은 ⇒ [나은]
- ③ 싫어 ⇒ [실어] ⇒ [시러]

- ② 뜨이어 ⇒ [뜨여]
- ④ 많아 ⇒ [마 : 나]

★ 용언의 어간 끝소리 ‘ㅎ’의 탈락

우리말의 자음 ‘ㅎ’은 모두 마찰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 소릿값은 뒤따르는 모음의 무성음에 가깝다. 따라서 이 자음이 유성을 사이에 놓이게 되면, 그 음성 환경 때문에 자신의 소릿값을 실현하지 못하고 악화, 탈락한다.

Answer

- 문제로 확인하기 ②

‘뜨이어’가 [뜨여]로 발음되는 것은 ‘이어’가 ‘여’로 축약된 경우에 해당한다. 탈락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음운의 축약과 탈락

변동의 결과 음운의 수가 하나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축약과 탈락이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축약은 두 음운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성질들이 축약된 음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반해 탈락은 한 음운의 성질이 모두 없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의 축약과 탈락은 자음과 모음 모두에서 나타난다.

(4) 기타 음운 현상

★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 양성 모음: 밝고 작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ㅏ, ㅓ, 계열’의 모음
- 음성 모음: 어둡고 크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ㅓ, ㅜ, 계열’의 모음

★ 모음 조화가 파괴된 단어들

- 강충강충, 오순도순, 오똑하다, 소꿉질, 소꿉놀이, 단출하다 등
- ‘ㅂ’ 불규칙 형용사: 가까워, 아름다워 등

① 모음 조화(母音調和):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진 편이었으나, 양성 모음의 기본 차이던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모음 조화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현대 국어에서는 일부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지켜지고 있을 뿐이다.

㉠ 연결 어미 ‘-아/-어’ 𩔗 깎아/깎어, 놓아/넣어

㉡ 명령형 어미 ‘-아라/-아라’ 𩔗 막아라/먹어라

㉢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𩔗 잡았다/접었다

㉣ 음성 상징어(의성 부사, 의태 부사) 𩔗 솔솔/술술, 찰찰/철철



모음 조화 현상이 지켜진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너불너불 ② 알록달록 ③ 강충강충 ④ 아롱다롱

② 원순 모음화(圓脣母音化): ‘ㅁ, ㅂ, ㅍ’의 영향으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인 ‘ㅜ’로 바뀌는 현상을 뜻한다.

𩔗 물 𩔗 물, 블 𩔗 불, 풀 𩔗 풀, 더브러 𩔗 더불어, 스물 𩔗 스물

③ 전설 모음화(前舌母音化): ‘ㅅ, ㅈ, ㅊ’의 밑에 있는 후설 모음인 ‘ㅡ’가 전설 모음인 ‘ㅣ’로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𩔗 즘 𩔗 짓, 춤 𩔗 침, 거출다 𩔗 거칠다, 아춤 𩔗 아침, 나즈막하다 𩔗 나지막하다

④ 활음조(滑音調, 유포니 현상)

㉠ 음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는 현상

𩔗 희노(喜怒) 𩔗 희로, 히낙(許諾) 𩔗 히락, 한나산 𩔗 한라산

㉡ 편하게 말하기 위하여 ‘ㅇ’이 ‘ㄴ’이나 ‘ㄹ’로 바뀌는 현상

𩔗 폐염 𩔗 폐렴, 지이산 𩔗 지리산

⑤ 이화(異化) 현상: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 중 하나를 다른 소리로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동화와 대립되는 현상인데 발음의 단조로움을 깨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𩔗 나모 𩔗 나무, 거듭 𩔗 거북

Answer ↗

- 문제로 확인하기 ③

‘강충강충’은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ㅜ’가 어울려 있는 단어로 모음 조화 현상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 ⑥ 유추(類推): 기억의 편의를 위하여 혼란한 어형은 기준형을 설정하여 그 기준형으로 통일하려는 현상을 뜻한다.
- 사울 ⇌ 사흘 ⇌ 사흘, 나을 ⇌ 나흘 ⇌ 나흘 (기준형 '열흘')
서르 ⇌ 서로(부사는 대체로 '-로'로 끝남.)
- ⑦ 단모음화: 'ㅣ' 선행 모음의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 사공>사공, 셜>설, 쇼>소
- ⑧ 오분석: 말의 구조를 잘못 분석하여 어형의 변화를 가져온 현상
- 낙시: 낙(명사) + ㅣ(조사) ⇌ '낙시'가 하나의 명사로 굳어짐
파리: 풀(명사) + ㅣ(조사) ⇌ '풀리'가 하나의 명사로 굳어짐
- ⑨ 부정 회귀: 구개음화의 역작용
- 질쌈>길쌈, 담취>침취>김치
- ⑩ 민간 어원설(民間語源說): 호사가(남의 일에 특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억지로 맞추어 꾸며 낸 언어유희에 의한 어원으로,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어원설을 뜻한다.
- 행주치마: 행자 스님의 치마(행자치마)를 행주산성 미담과 연결
황소: '한소(큰 소)'를 황(黃)소로 오해
우레: 고유어인데 '우뢰(비[雨], 천둥[雷])'로 오해



기출로 보는 소리(음운론)

Part 2
소리

- 01 현대 국어의 자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류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2009. 국가직 9급

현대 국어의 자음(子音)은 파열음(破裂音) /ㅂ, ㅃ, ㅍ, ㄷ, ㅌ, ㅌ, ㅋ/, 파찰음(破擦音) /ㅈ, ㅉ, ㅊ/, 마찰음(摩擦音) /ㅅ, ㅆ, ㅎ/, 유음(流音) /ㄹ/, 비음(鼻音) /ㅁ, ㄴ, ㅇ/ 등의 열아홉이다.

- ① 소리 내는 위치 ② 소리 내는 방법
③ 혀의 위치 ④ 입술의 모양

▣ 정답 해설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양순음)	혀끌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성문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마찰음	거센소리			ㅊ		
		예사소리		ㅅ			ㅎ
울림 소리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02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ㅡ, ㅓ,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④ ‘ㅟ, ㅚ, ㅕ, ㅑ’는 원순 모음이다.

▣ 정답 해설

‘ㄴ, ㅁ, ㅇ’은 비강을 울려 발음하는 비음이다. 유음은 ‘ㄹ’이다.

▣ 오답 해설

- ②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보다 마찰음이 적어, ‘ㅅ, ㅆ, ㅎ’만이 마찰음이다.
③ ‘ㅡ, ㅓ, ㅏ’는 혀의 최고점이 뒤로 치우친 후설 모음이다.
④ ‘ㅟ, ㅚ, ㅕ, ㅑ’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Answer ↗

1. ② 2. ①



0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 ②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ㅔ, ㅐ, ㅓ, ㅕ’도 포함된다.
- ③ ‘ㅈ, ㅊ, ㅋ’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
- ④ ‘ㅑ’와 ‘ㅕ’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j](혹은 [y]), [w]이다.

▣ 정답 해설

‘유기음’은 ‘거센소리’를 의미한다. 이를 ‘격음(激音)’이라고도 한다. 평음(예사소리), 경음(된소리), 유기음(거센소리)의 삼지적 상관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이다. 마찰음은 평음과 경음만 있다.

▣ 오답 해설

- ② ‘ㅔ, ㅐ, ㅓ, ㅕ’는 단모음으로 분류된다.
- ‘ㅏ, ㅓ, ㅗ, ㅜ,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 ③ ‘ㅈ, ㅊ, ㅋ’은 ‘파찰음’이다.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파열음의 특성을 발견 할 수 있다.
- ④ ㅑ(j) + ㅏ → ㅑ, ㅗ/w) + ㅓ → ㅕ

04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1차

- ① 탈락: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첨가: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 ③ 축약: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④ 교체(대치):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 정답 해설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면 연음이 일어난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자음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하는 현상이다.

Answer

3. ① 4. ①

05 ‘깎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깎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고’로 발음된다.
- ④ ‘깎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 정답 해설

깎는 \Leftrightarrow [깎는] \Leftrightarrow [깡는]

‘깎는’은 음절의 끝소리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ㄱ]으로 바뀐 뒤, ‘는’의 초성 ‘ㄴ’과 만나 비음화(교체)되어 [깡는]으로 발음된다.

④ 오답 해설

② 깎아 \Leftrightarrow [까까]

‘깎아’는 어간 ‘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어미 ‘-아’ 만났으므로 그대로 연음하여 [까까]로 발음한다. 탈락 현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③ 깎고 \Leftrightarrow [깍고] \Leftrightarrow [깍꼬]

‘깎고’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ㄱ]으로 바뀌고, “받침 ‘ㄱ(ㄱ, ㅋ, ㄲ, ㅋㅋ), ㄷ(ㅅ, 쟁, ㅈ, ㅊ, ㅌ), ㅂ(ㅍ, ㅃ, ㄸ, ㅃㅃ)”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된소리되기 (=경음화 현상, 교체)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도치 현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도치’는 한 단어 안에서 두 음소나 음절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이다. ‘빛복’이 ‘배꼽’이 된 것이 도치 현상의 대표적인 예인데, ‘빛복’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초성과 종성의 자음 ‘ㅂ’과 ‘ㄱ’이 자리를 바꾸어 오늘날의 ‘배꼽’이 된 것이다.

④ 깎지 \Leftrightarrow [깎지] \Leftrightarrow [깍찌]

‘깎지’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ㄱ]으로 바뀌고, “받침 ‘ㄱ(ㄱ, ㅋ, ㄲ, ㅋㅋ), ㄷ(ㅅ, 쟁, ㅈ, ㅊ, ㅌ), ㅂ(ㅍ, ㅃ, ㄸ, ㅃㅃ)”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된소리되기 (=경음화 현상, 교체)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06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2009. 국가직 9급

날씨가 추워지면 솜이불이 생각난다.

- ① 송별연
- ② 꽃잎
- ③ 한여름
- ④ 막일

▣ 정답 해설

‘솜이불’은 ‘ㄴ’ 음이 첨가되어 [솜 : 니불]로 발음한다. ‘ㄴ’ 음의 첨가 현상이 없는 것은 ‘송별연[송 : 벼련]’이다.

④ 오답 해설

② 꽃잎[꼰님]: ‘ㄴ’ 첨가 현상

③ 한여름[한녀름]: ‘ㄴ’ 첨가 현상

④ 막일[망닐]: ‘ㄴ’ 첨가 후 자음 동화(비음화)

Answer ↗

5. ① 6, ①

07 다음 중 음운의 변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2, 서울시 7급

- | | | |
|------|-------|-------|
| ① 국화 | ② 바느질 | ③ 소나무 |
| ④ 들러 | ⑤ 갔다 | |

▣ 정답 해설

국화[구과]: 자음 ‘ㄱ’과 ‘ㅎ’이 만나서 ‘ㅋ’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음 축약이다.

▣ 오답 해설

나머지는 탈락에 해당하는 예이다.

- | | |
|-----------------------|-------------------------|
| ② 바늘+질 ⇒ 바느질 ('ㄹ' 탈락) | ③ 술+나무 ⇒ 소나무 ('ㄹ' 탈락) |
| ④ 들르-+어 ⇒ 들러 ('으' 탈락) | ⑤ 가-+았-+다 ⇒ 갔다 ('아' 탈락) |

Tip

★ 탈락

- 표기와 발음에서 탈락: ‘ㄹ’ 탈락, 동음 탈락
- 발음에서만 탈락: ‘ㄴㅎ’, ‘ㅌ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ㅎ(ㄴㅎ, ㅌ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오면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08 밑줄 친 단어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2013, 기상직 9급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여 소리 나는 현상

- ① 화가 난 지수가 미닫이를 세게 닫으면서 들어왔다.
- ② 영수는 미술 시간에 국화를 멋있게 그렸다.
- ③ 맏형인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다.
- ④ 영희가 준비물을 책상 위에 놓고 갔다.

▣ 정답 해설

미닫이[미:다자]는 구개음화. 즉, 음운의 교체(대치)에 해당한다.

▣ 오답 해설

국화[구과], 맏형[마형], 놓고[노코]는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Tip

★ 축약

- 자음 축약 =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
- 모음 축약 = 이중 모음 되기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 ⇒ 와, 지어 ⇒ 쟈, 찌어 ⇒ 짜,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0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사회복지직 9급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交替),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脫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添加),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縮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 ① 교체 – 부엌[부억] | ② 탈락 – 굳이[구지] |
| ③ 첨가 – 솜이불[솜:니불] | ④ 축약 – 법학[벼팍] |

▣ 정답 해설

굳이[구지]는 구개음화로서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대치)에 해당한다.

Tip

★ 구개음화

반침 ‘ㄷ, ㅌ(ㅌe)’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 한다.

Answer

7. ① 8. ① 9. ②

10 밑줄 친 부분 중 음운 변동의 성격이 다른 것은? 2016. 기상직 7급

- 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섰다.
- ② 그녀는 가운데 과녁을 향해 활을 쐈다.
- ③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큰집에 갔다.
- ④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 정답 해설

'쐈다'는 '쏘다'의 어간 '쏘-'에 어미 '-았디'가 결합한 '쏘았다'에서 '느'와 'ㅏ'가 '파'로 축약된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섰다'는 '서---었---다'에서 '---'가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따라'는 '따르다'의 어간 '따르-'에 어미 '-아'가 결합한 것으로, '---'가 탈락하였다.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우는'은 '울다'의 어간 '울-'에 어미 '-는'이 결합한 것으로, 'ㄹ'이 탈락하였다.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11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2015. 서울시 9급

- | | |
|------------------------------|-------------------------------|
| Ⓐ XAY \Rightarrow XBY (대치) | ㉡ XAY \Rightarrow XØY (탈락) |
| Ⓑ XØY \Rightarrow XAY (첨가) | ㉢ XABY \Rightarrow XCY (축약) |

『보기』

술+하고 \Rightarrow [손하고] \Rightarrow [소타고]
(가) (나)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해설

[손하고]: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만 빌음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술'이 [손]으로 발음되는 것은 Ⓐ 대치 현상에 해당한다.

[소타고]: 'ㅎ' 앞이나 뒤에 'ㄱ, ㄷ, ㅂ,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두 음운을 합쳐서 [ㅋ,ㅌ,ㅍ,ㅊ]으로 빌음한다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Answer ↗

10. ② 11. ②



12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인 것은? 2015. 서울시 7급

- | | | | |
|-----------|-------|------|-------|
| Ⓐ 굳이 | Ⓛ 끊더라 | Ⓓ 뒷일 | Ⓔ 무릎 |
| Ⓑ 배꼽(<벗복) | ⓫ 싫어도 | ⓬ 있지 | ⓭ 잡히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해설

Ⓐ 굳이: [구디 ⇌ 구지]는 대치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연음된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소리가 변화한 것이다. 이런 구개음화 현상은 동화에 포함되며, 동화는 대치(=교체)에 속한다.

Ⓑ 무릎: [무릅]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치에 속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 받침이 ‘ㅂ’으로 발음된다.

Ⓐ 있지: [인지]로 발음되는 것은 대치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ㅆ’ 받침이 ‘ㄷ’이 되고, ‘ㄷ’과 ‘ㅈ’이 만나 경음화 현상으로 인해 ‘ㅈ’이 [찌]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 현상(된 소리되기)은 모두 대치에 속한다.

▣ 오답 해설

Ⓐ 끊더라: ‘끊더라’가 [끈터라]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ㅎ’과 ‘ㄷ’이 만나면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의해 ‘ㅌ’으로 발음된다.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축약에 속한다.

Ⓓ 뒷일: ‘뒷일’이 [된 : 날]로 발음되는 것은 첨가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ㅣ’ 모음 앞에 ‘ㄴ’이 첨가되고, 이로 인해 표기에서 사이시옷을 넣게 된 것이다.

Ⓐ 배꼽(<벗복): ‘복’이 ‘꼽’으로 바뀐 것은 도치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도치 현상은 한 단어 안에서 두 음소나 음절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으로, ‘벗복’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초성과 종성의 자음 ‘ㅂ’과 ‘ㄱ’이 자리를 바꿔 ‘배꼽’이 되었다.

Ⓐ 싫어도: ‘싫어도’가 [시리도]로 발음되는 것은 탈락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먼저 ‘ㅎ’이 연음된 뒤,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ㅣ’를 만나 발음되지 않고 탈락한 것이다.

Ⓐ 잡히다: ‘잡히다’가 [자피다]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ㅎ’과 ‘ㅂ’이 만나면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의해 ‘ㅍ’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축약에 속한다.

Answer

12. ②



★ 'ㅣ' 모음 역행 동화

- 뒤에 오는 'ㅣ' 모음 때문에 앞의 모음이 전설 모음화되는 현상은 표준 발음으로도 표기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냄비, 끗내기, 동댕이치다, -쟁이 등 예외가 존재함.)
- 순행 동화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피어, 되어, 이오, 아니오 등)

13 다음 글에서 설명한 내용의 예(例)로 옳지 않은 것은? 2005. 국가직 9급

동화란 어떤 음의 영향으로 다른 음이 그와 닮아지는 음운의 변화이다. 동화에는 앞의 음의 영향으로 뒤의 음이 변하는 순행(順行) 동화와 그 반대인 역행(逆行) 동화가 있다.

자연적 음운 과정의 대부분은 동화이지만 축약이나 생략, 첨가, 이화(異化) 등도 자주 일어난다. 이 중에서 이화는 동화와 반대로 한 음운을 다른 소리로 바꾸어 표현하는 음운의 변화이다. 이화에는 자음이 바뀌는 자음 이화와 모음이 바뀌는 모음 이화가 있다.

- ① '어미 > 에미(母)'는 '어'와 '미'의 모음이 비슷하여 '어'의 모음을 바꾼 것으로 모음 이화에 속한다.
- ② 근대 국어의 '잡하다 > 잽하다'에서 '잡'의 'ㅏ'가 'ㅑ'로 바뀐 것은 '하'의 'ㅣ' 때문이므로 '역행 동화'이다.
- ③ 옛날에는 '거붐(龜)'으로 사용되던 것이 오늘날 '거북'으로 변화된 것은 자음 이화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 ④ '물 > 물(水)'에서 모음 'ㅡ'가 'ㅜ'로 바뀐 것은 '입술소리'인 'ㅁ' 아래에서 일어난 것으로 순행 동화이다.

▣ 정답 해설

'어미 > 에미(母)'는 '미'의 'ㅣ'의 영향으로 '어'가 '에'로 변한 'ㅣ' 모음 역행 동화이다.



★ 원순 모음화는 순행 동화

순음(ㄷ, ㅂ, ㅃ, ㅍ)과 유음(ㄹ)
사이에서 모음 'ㅡ'가 'ㅜ'로 바뀐 것을 '원순 모음화'라 한다.
이는 조성으로 인해 중성이 바뀐 것으로 순행 동화이다.

질의응답 옛보기

▣ 물음 음운의 개수를 셀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이에는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등이 있습니다. 소리의 길이 · 높낮이 · 세기 등은 의미의 분화를 가져오는 음운이긴 하나 음운의 개수를 따질 때는 그 경계가 모호하므로 그 개수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없어요 : '없다'는 [업 : 따]로 발음하므로 '없어요'는 [업 : 써요]라 길게 발음합니다. 이런 경우 첫소리의 'ㅇ'은 음자가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고 소리의 길이 역시 음운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없어요'를 'ㄴ, ㅂ, ㅆ, ㅓ, ㅏ, ㅕ' 등의 다섯 개의 음운을 가진 단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음운의 개수를 따질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받침의 'ㅇ'은 음운이나 조성의 'ㅇ'은 발음이 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 ② 사이시옷은 단순한 소리 부호일 뿐이므로 음운의 수에도, 형태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모음은 단모음이건 이중 모음이건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한다. 즉, 'ㅏ'는 'ㅗ', 'ㅓ'는 'ㅏ'라는 두 개의 음운이 아니라 이중 모음 'ㅕ'라는 하나의 음운이다.

참고로 '국화, 촇불, 과수원'의 음운은 각각 몇 개인기를 보도록 하지요.

- 국화 : [구과]로 발음되므로 'ㄱ, ㅜ, ㅋ, ㅏ'라는 네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촇불 : [초뿔/총뿔]로 발음되나 사이시옷은 음운의 숫자에서 빼므로 'ㅊ, ㄴ, ㅂ, ㅜ, ㄹ'의 다섯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과수원 : 'ㄱ, ㅏ, ㅅ, ㅜ, ㅓ, ㄴ'이라는 여섯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Answer ↗

13. ①